



2019

Newsletter Vol.5

KOLLABO Pathfinder

경일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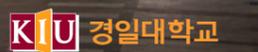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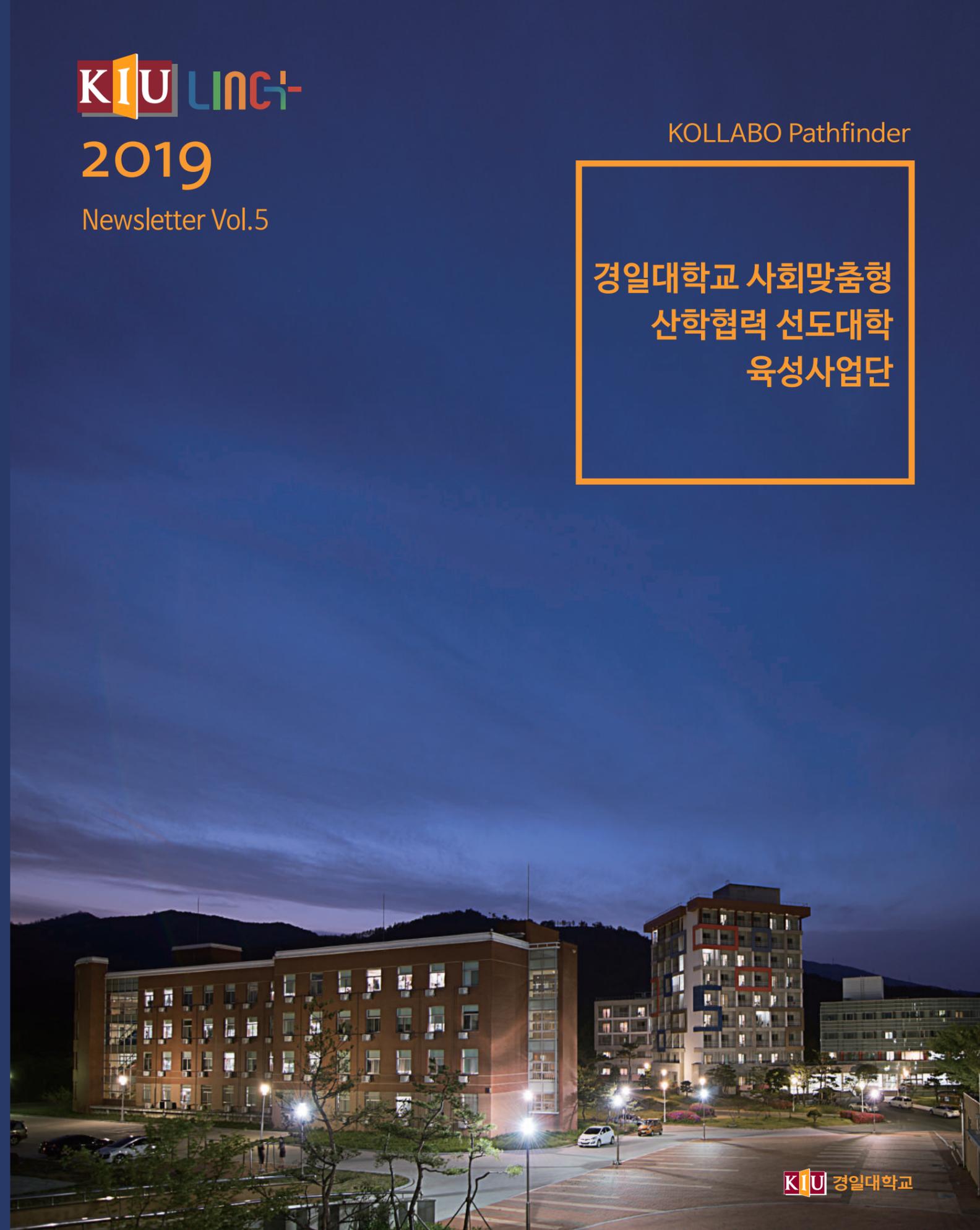


학생과 함께 기업과 함께
경일대학교



경일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산학협력관 305호 LINC+사업단
T. 053-600-4410 F. 053-600-4429 <http://linc.ki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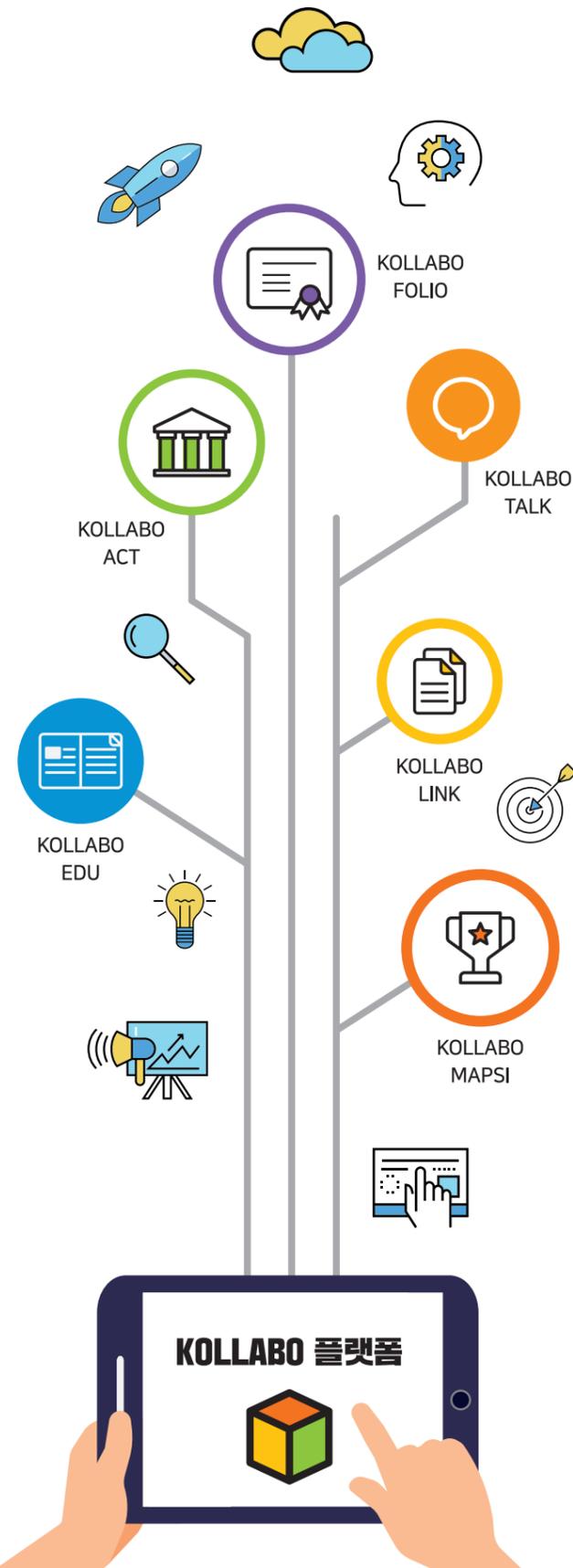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명문대학으로 재도약합니다.

경일대학교는 1963년 개교 이후 산학협력을 대학특성화 중점분야로 육성해 왔으며, 학생 중심의 '학생행복 365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으로 선정된 이후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다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으로 선정되면서 산학협력 최우수대학의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일대학교 LINC+사업단은 기업과 대학이 공존하는 '산학협력'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의 고도화를 위하여 경일대학교의 강점과 지역 산업의 발전 역량을 고려하여 특화분야로 '미래형 자동차부품'과 '新사회 안전인프라'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사업을 강화하고 기술이전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LINC+사업단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양성과 산학네트워크의 효율적인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일대학교 LINC+사업단은 사회맞춤형사업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맞춤형 All-Set 프로그램인 Dreamer 패키지 지원사업과 TOBE(TOgether BoomEr) Innovation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 온라인 포털인 콜라보(KOLLABO)플랫폼을 구축하여 산학협력서비스를 통합하고, 영역별 전문화된 시스템으로 확장하여 방대한 데이터의 생산과 처리를 원활하게 하며, 성과 분석 및 기업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일대학교 LINC+사업단은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산학협력 가치창출대학을 실현하고자 끊임없이 혁신을 주도하면서 많은 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지역의 산학연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일대학교 LINC+사업단장 김현우



CONTENTS

- 사업단소개

04_ KOLLABO Pathfinder 05_ KOLLABO 플랫폼 | KIUM산학칼리지 06_ K형(취.창업) 인재양성 / 융.복합 인재양성
07_ TOBE Innovation 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 | Dreamer 성장지원 프로그램

- VISION

08_ KUIM산학칼리지 산학교육자문위원회 개최 | 2018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결과평가위원회 개최

- INFRA & STRUCTURE

09_ 경일대/경북테크노파크 업무협약 체결 |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인재양성 특강 및 컨설팅 개최 10_ 2018 LINC+위원회 개최 | 2018 LINC+사업단 KOLLABO플랫폼 중간성과보고회 (2차) 개최

- ACTION

11_ 경일대, 대구 국제 미래 자동차 EXPO 참가 12_ 경일대학교 창·융합 KUIM Fair 2018 개최 13_ 산학협력 EXPO서 장관·이사장 표창 14_ 2019 태국 방콕 국제 지식재산·발명·혁신·기술 전시회 15_ 서울국제발명전시회 동상 수상 | 경일대학교 다문화가족 자립화 지원 16_ 제 4회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GIF)참가 | 2018년 대학 리빙랩 성과공유회 | 노인체육복지전공, 시니어 올림픽 개최 17_ 경일대학교, 일본 동경대학교와 공동 세미나 개최 | 자유학기제 대학생 봉사단 우수상 수상 18_ 2018년도 O2O(Online to Offline) 진로·취업 멘토/멘티 교류회 개최 19_ 2018 사회적경제 소셜비즈톤 창업캠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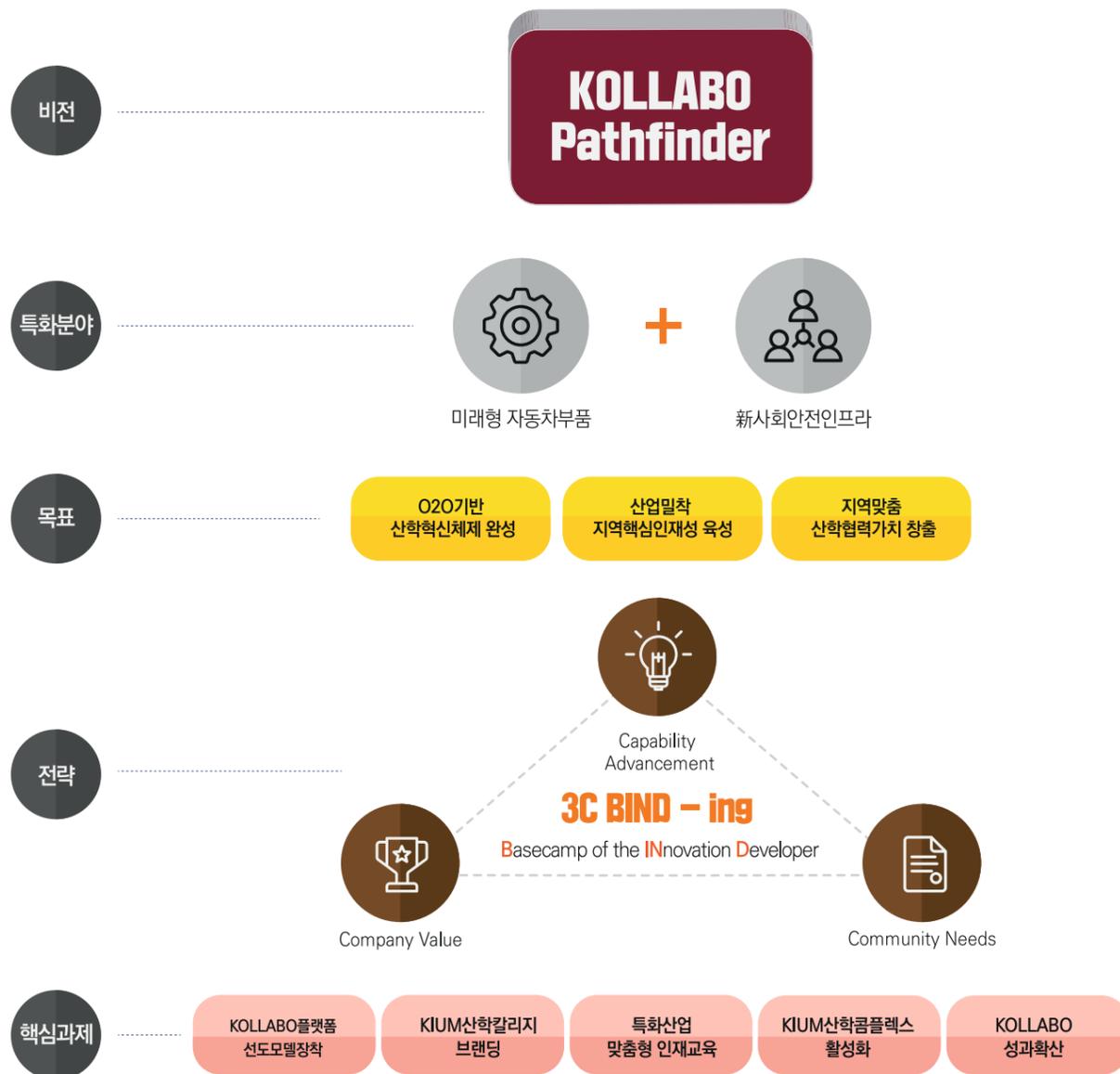
- KIU FOCUS

20_ 경일대 자율주행차융합기술연구소 개소 21_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기관 지정 22_ 경일대, 자율주행 임시면허 취득 | 대학 취업·창업 역량 평가 전국 11위 23_ 경일대학교 제8회 KOLLABO EXPO 개최

사업단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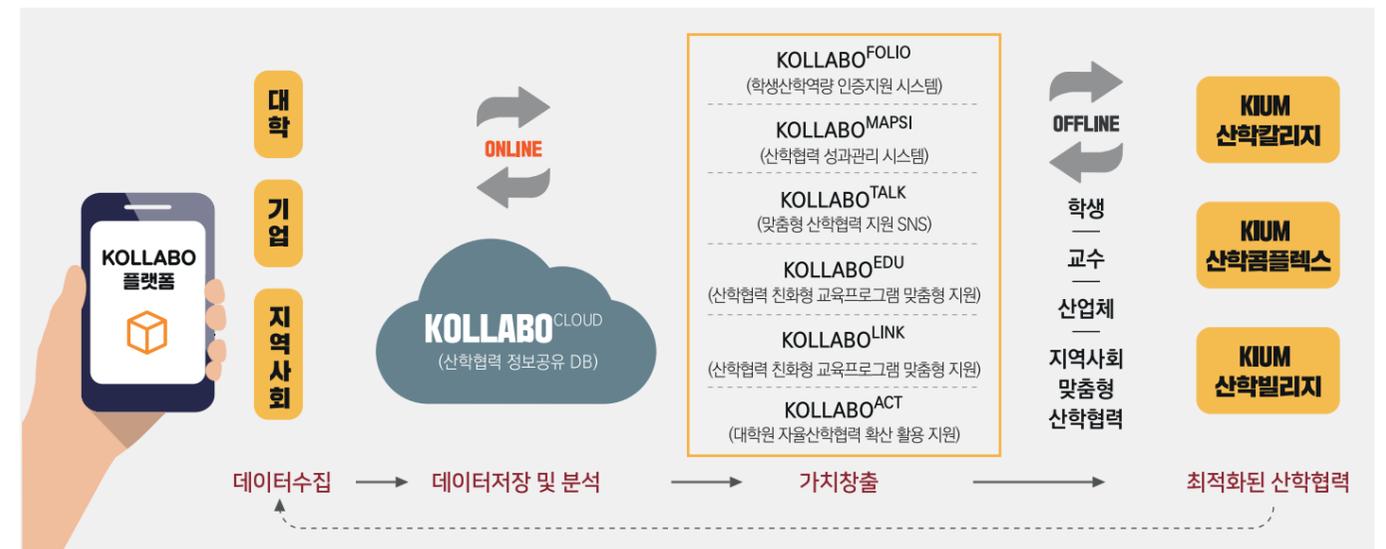
KOLLABO Pathfinder

1963년 개교 이래 산학협력을 최우선의 가치로 중시해 온 경일대학교는 50여 년간의 총체적 산학역량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LINC사업을 통해 산학친화형 대학으로 발전하였고 2016년 3월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인 [KIU Renovation 2025]를 바탕으로 LINC+사업단의 미션과 KOLLABO 플랫폼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산학협력 가치창출대학”을 실현하고자 ‘KOLLABO Pathfinder’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업의 목표는 대학 특화추진 부문인 미래형자동차부품과 新사회안전인프라에 대한 전 범위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O2O(On-line to Off-line)기반 산학혁신체계 완성’, ‘산업밀착 지역핵심인재 육성’, “지역맞춤 산학협력 가치창출”로 설정하였다. 경일대학교 LINC+사업단은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과 대학, 기업, 지역사회의 트라이앵글 산학체계인 3C BIND-ing전략을 수립하였다. 5대 핵심과제로는 지역과의 상생발전의 Pathfinder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KOLLABO플랫폼 선도모델정착, KIUM산학칼리지 브랜딩, 특화산업 맞춤형 인재교육, KIUM산학콤플렉스 활성화, KOLLABO성과확산으로 구성하였다.



KOLLABO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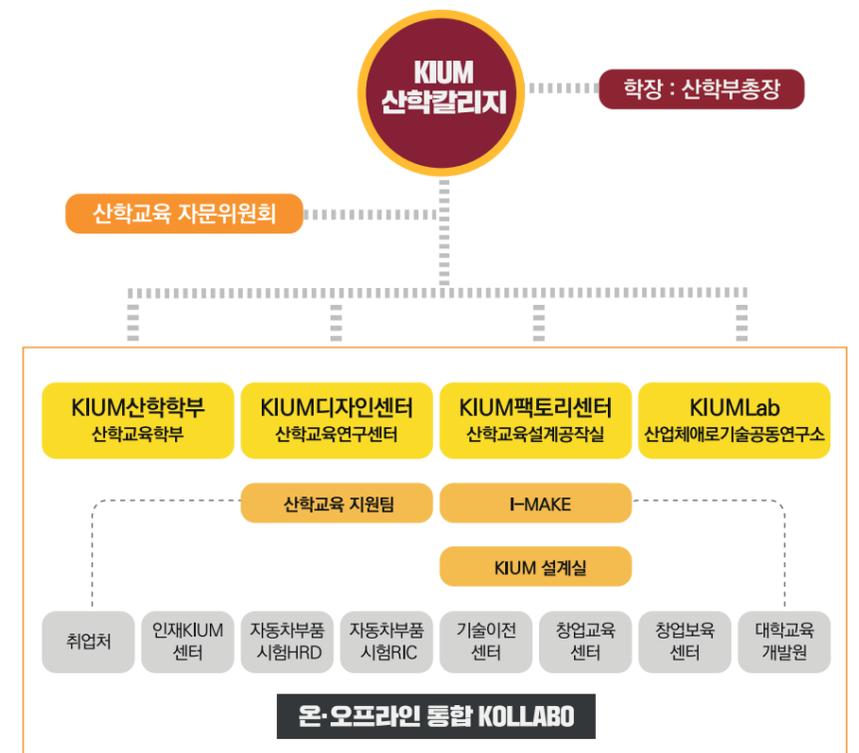
경일대학교 LINC+사업단은 기존 포털 기반의 산학협력 연계 시스템인 KOLLABO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KOLLABO 플랫폼을 구축했다. KOLLABO 플랫폼은 Cloud 기반으로 산학협력 서비스를 통합하고 영역별 전문화 된 시스템으로 확장하여 방대한 데이터의 생산 및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성과분석 및 기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App 서비스를 강화하여 정보공유 협업 연계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학내 시스템과 연계하여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KOLLABO 플랫폼은 KOLLABO^{EDU}, KOLLABO^{LINK}, KOLLABO^{ACT}, KOLLABO^{TALK}, KOLLABO^{MAPSI}, KOLLABO^{FOLIO}로 구성되며 학생, 교수, 산업체, 지역사회 각 주체간의 연계가 가능한 통합정보시스템 및 협업시스템의 역할을 담당한다.



KIUM산학칼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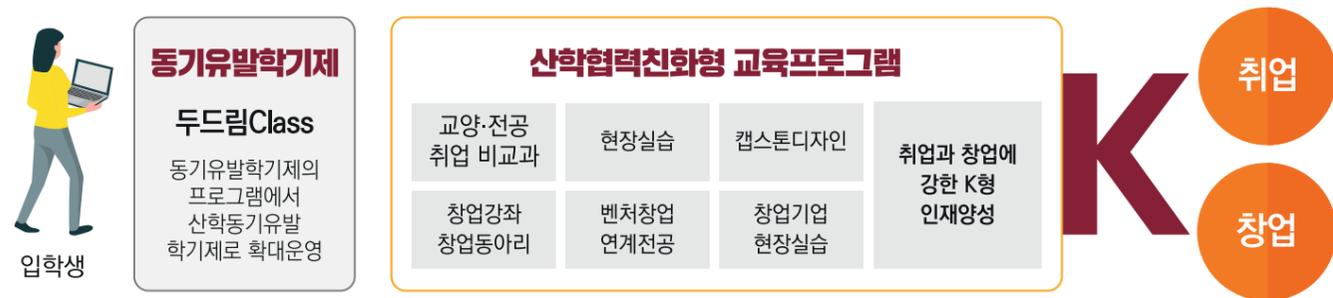
KIUM산학칼리지는 현장 중심의 산업밀착형 교육을 실현하는 전문 단과대학입니다.

경일대학교는 ‘지역 핵심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산학협력 교육을 전담하는 KIUM산학칼리지를 신설했다. KIUM산학칼리지는 산학협력에 관한 ‘지역 핵심인재의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단과대학으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학협력 역량강화 교육모델 개발과 운영 지원 체제를 구축했다. KIUM산학칼리지 조직은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KIUM산학학부를 중심으로 산학친화형 교육모델 연구 지원하는 KIUM디자인센터, 산학협력 교육 운영을 위한 작품제작실 운영 및 관리하는 KIUM팩토리센터와 산업체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소를 운영 및 지원하는 KIUM Lab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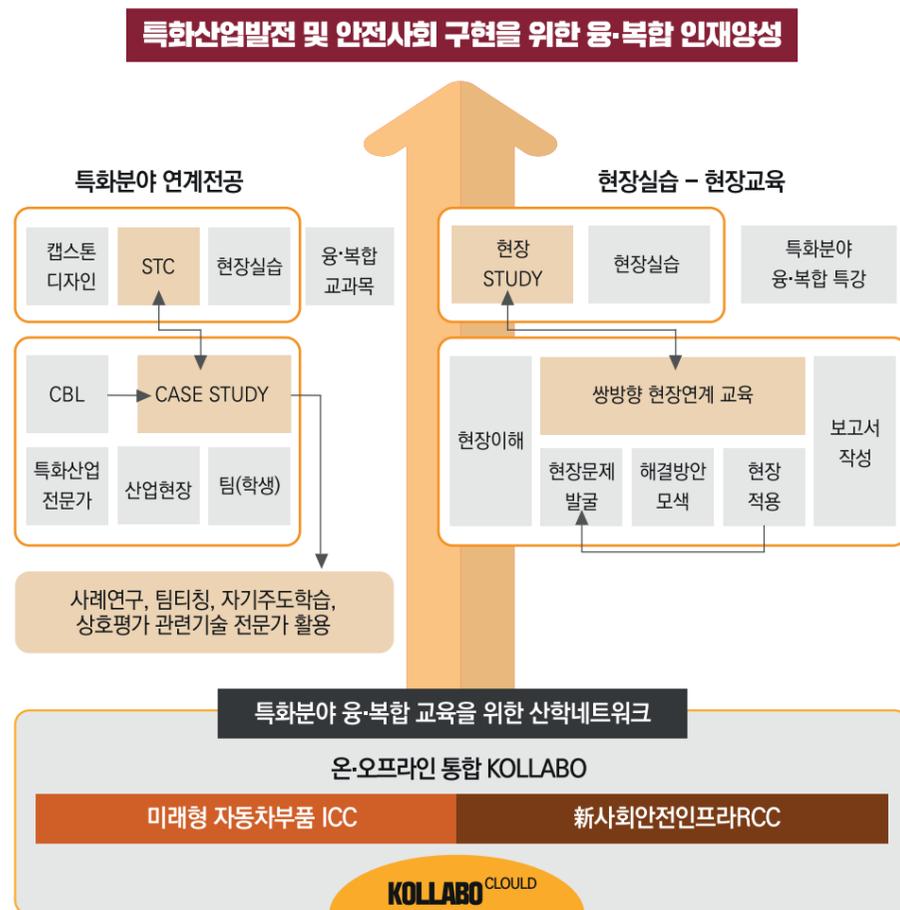
K형(취·창업) 인재양성

경일대학교는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취업과 창업 역량을 모두 겸비한 K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동기 유발학기제인 「두드림 Class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창업 마인드를 고취하여 산학 친화마인드 고취를 위한 역량을 강화시킨다.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정규과목인 캡스톤디자인과 현장실습뿐만 아니라, 특화분야 전문취업강좌, 다양한 CAMP 및 취업멘토 이벤트 등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융·복합 창업교육, 선도벤처창업동아리 집중지원과 창업기업에서 현장실습하는 맞춤형 창업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통하여 기업환경에서 실질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취·창업 역량을 모두 겸비한 K형 인재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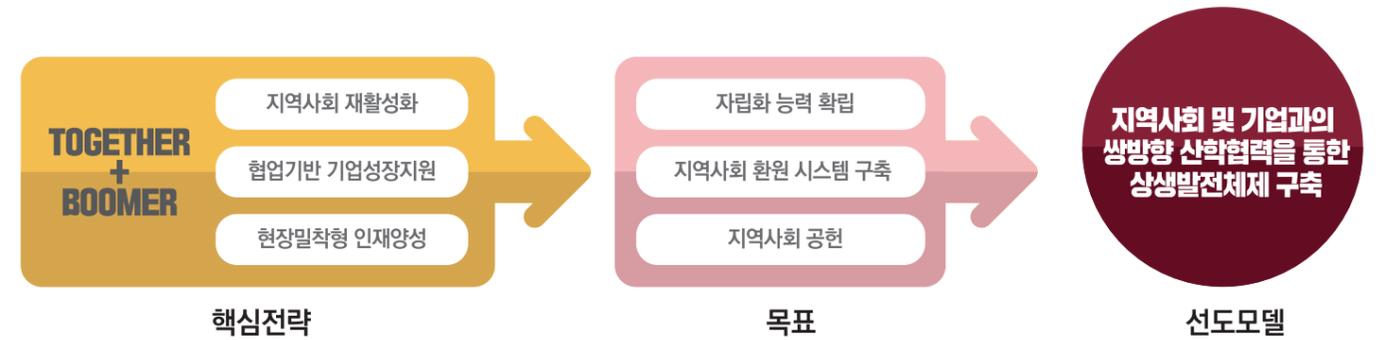
융·복합 인재양성

미래사회의 인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함양하고, 특화산업발전 및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폭넓은 안목을 지닌 융·복합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경일대학교는 특화분야로 「미래형 자동차부품 및 新사회 안전인프라」 분야로 선정하고 학사제도 개선,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 및 융·복합 교육과정 실현을 통해 융·복합적 인재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특화분야 교육프로그램으로 ①CASE STUDY(특화분야 산업현장의 성공과 실패사례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 ②현장 STUDY(특화기술 분야의 현장이해를 통해 문제해결), ③현장실습과 캡스톤디자인 연계로 선순환 구조 체계확립 ④하이브리드 연계전공의 지속적인 개발로 특화분야 연계전공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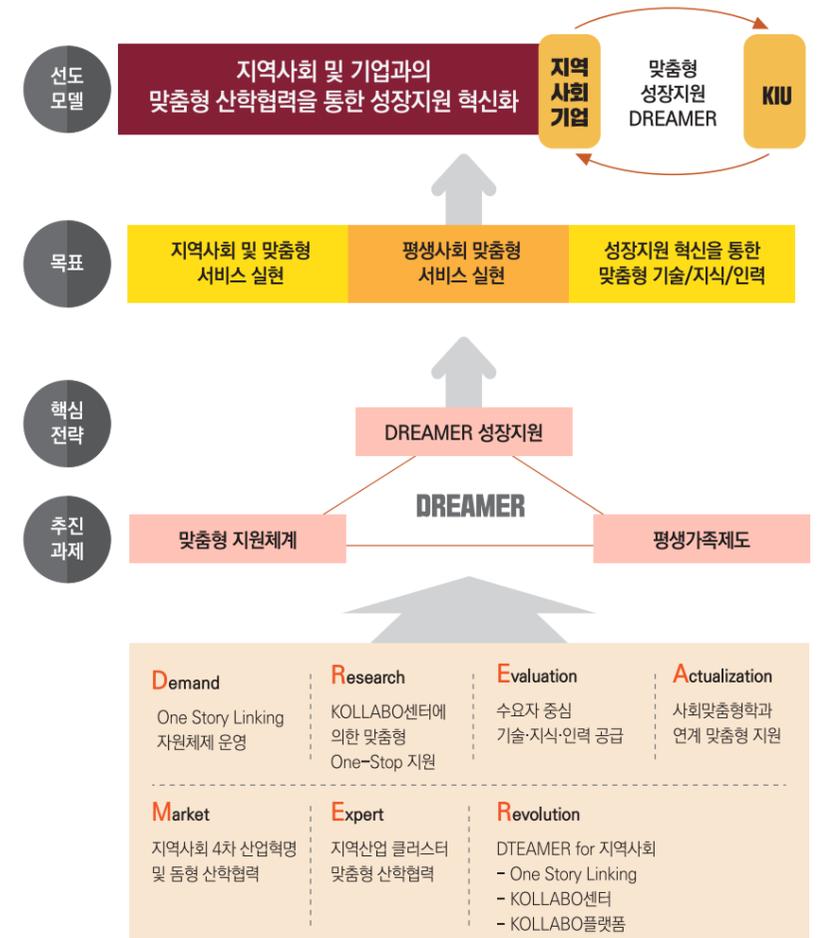
TOBE Innovation 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현안 해결과 공공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대학의 사회공헌 책무완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TOBE(TOgether BoomEr) Innovation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은 교수와 학생들이 전공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대학의 발전과 학생들의 현장밀착형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경일대학교 LINC+사업단은 지역사회 혁신 및 공공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아젠다 도출과 실천전략 수립을 위하여, 전체 학부(과)를 통해 프로젝트를 공모하였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사진공모 및 음악공연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창작프로그램,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사회활동과 다양한 직업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체험프로그램, 지역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도시건축 설계 전시 프로그램, 지역사회 소외계층 및 노년층 ICT 기초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DREAMER 성장지원 프로그램

경일대학교는 지난 3년간의 LINC사업을 통하여 스마트차동차부품과 스마트인프라융합 분야의 지역기업을 위주로 하여 가족회사, 산학협력협의체, All-set 지원시스템,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LINC+사업에서는 지역사회와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위한 DREAMER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DREAMER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맞춤형 종합지원 One Story Linking 체제를 구축하고 KOLLABO 센터에 의한 맞춤형 One-Stop 지원, 수요자 중심 기술·지식·인력 공급, 사회맞춤형학과 연계 맞춤형 지원, 지역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산학협력, 지역산업 맞춤형 산학협력 달성을 주요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경일대학교 LINC+사업단은 지역사회 및 기업의 지원을 위한 DREAMER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 실현, 평생사회 맞춤형 서비스 실현, 성장지원 혁신을 통한 맞춤형 기술·지식·인력 제공의 세부목표를 달성하여 우리대학의 선도모델로 제시된 “지역사회 및 지역기업과의 맞춤형 산학협력을 통한 성장지원 혁신화 달성”을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KIUM산학칼리지 산학교육자문위원회 개최

경일대학교 LINC+사업단은 12월 27일 본관 3층 중회의실에서 KIUM산학칼리지 산학교육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산학협력 친화형 학사제도의 체계적인 지원체제 정착과 산학협력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모델 개발과 운영지원, 산학협력 기술역량 배가 및 인재육성, 2018학년도 주요추진성과 공유를 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연계전공 개선과 활성화 추진방안과 KIUM 팩토리(산학협력 교육운영을 위한 작품제작실 통합관리 및 지원, 4차산업혁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운영현황, KIUM lab(산업체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소 운영 및 지원, 학생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산학연 활성화로 대학과 지역 산업체와의 상생 추구)전략과제 추진 현황 및 STC[(Special Topic class)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및 4차산업혁명 등의 주제로 CBL(case based Learning)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실적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8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결과평가 위원회 개최

우리대학 LINC+사업단은 01월 29일 산학협력단 604호, 605호에서 2018학년도 LINC+사업 기업지원프로그램인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의 최종 결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총 24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평가위원은 분과별 4명씩 구성하여 한국연구재단 운영규정에 따라 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1명으로 진행하였다. 평가항목은 크게 '과제수행실적'과 '산학협력의 우수성'으로 나누어서 평가되었으며, 과제수행실적은 과제 계획대비 목표달성, 과제 결과의 우수성, 과제의 기타 결과물 등으로 구분하였다. 산학협력의 우수성은 과제 수행 시 참여기업과의 업무분배 및 협력방법에 대한 우수성, 과제수행 이외의 산학협력을 위한 노력, 개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 참여 여부 및 인력양성 성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경일대 - 경북테크노파크 업무협약 체결



1. ICT, 콘텐츠, 게임 산업분야 관련 정보 공유



2. 게임산업 인력양성 등 관련 산업 분야 공동 사업 추진 및 협력



3. 보유 기자재와 시설활용 및 인력 상호교류



4. 행사 공동 개최 및 경영·기술정보, 자료, 지식 등 상호공유



5. 기타 필요로 하는 공동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경북 유망 콘텐츠 기업 성장지원, 산학협력

경일대학교(총장 정현태) LINC+사업단은 10월26일 (재)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재)경북테크노파크와 경북 유망콘텐츠 기업 성장지원 및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해 교류와 협력을 기반으로 경상북도 내 유망 콘텐츠 기업 성장지원 및 산학협력을 도모하고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ICT, 콘텐츠, 게임 산업분야 관련 정보 공유 ▪게임산업 인력양성 등 관련 산업 분야 공동 사업 추진 및 협력 ▪보유 기자재와 시설 활용 및 인력 상호 교류 ▪행사 공동 개최 및 경영·기술 정보, 자료, 지식 등 상호공유 ▪기타 필요로 하는 공동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이다. 정현태 총장은 “자율주행차 기술과 드론교육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학답게 경북지역 유망 콘텐츠 기업 성장을 위해 우수 학생 양성에도 힘을 쏟겠다”며 경일대의 우수 인재들의 지역 콘텐츠 분야 기업 성장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인재양성 특강 및 컨설팅 개최

경일대학교 LINC+사업단은 12월 20일 산학협력관 604호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인재양성 특강 및 컨설팅을 개최하였다. 대학 전체 교직원 대상으로 개최된 특강은 전주대 한동욱 교수가 진행하였다. 이번 특강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인재양성 특강과 교육 혁신 관련 대상으로 컨설팅이 진행되었다. 전주대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 사업 소개를 통해 경일대학교 LINC+사업단의 활용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교육방법 혁신교육과 교육환경혁신을 통한 재학생 전문인력양성 환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이 진행되었다. 이번 특강 및 컨설팅을 통해 교직원 역량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학생 전문인력양성의 환류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2018 LINC+사업단 위원회

우리대학 LINC+사업단은 2019년 01월 30일 (수요일) 대구 인터볼고 호텔 (레이디스홀)에서 2차년도 제3차 LINC+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경일대학교 홍재표 산학부총장 외 22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LINC+위원회에서는 2차년도 LINC+사업 KIU형 융합인재 양성과 사업성과 확산 및 홍보, 기업 및 지역사회 혁신지원, 성과보고 및 이월금 심의 안건들이 처리되었다.



2018 KIU LINC+사업 KOLLABO플랫폼 구축 중간보고회(2차) 개최



경일대학교 LINC+사업단은 12월 18일 KOLLABO플랫폼 구축 2단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1차년도에 이어 2차년도에도 KOLLABO플랫폼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며, 현 업무 진행 상황 및 사용 실무자들의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KOLLABO플랫폼은 학생 산학협력 이력관리와 증대를 위한 개인맞춤형 학생 FOLIO 서비스를 구축중이며, 간편상담시스템인 KIUM SOS(콜라보챗)을 도입하여 학생들과의 공간 및 시간적인 제약을 넘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ACTION

SolutionPartner



COLOR SOLUTION

ENERGY

경일대,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 EXPO 참가

자율주행차량 기술 전시, 국내외 석학들과 포럼 진행

경일대학교(총장 정현태) 자율주행차융합기술연구소(소장:기계자동차학부 강우중 교수)가 11월 1일부터 4일까지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 2018(DIFA)'에 참가해 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DIFA 2018은 대구광역시와 지능형자동차 부품진흥원이 공동주관하는 행사로 미래자동차기술 전시회와 비즈니스 상담, 전문가 포럼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국내외 저명인사의 강연과 미래 자동차 기업의 전시가 이루어지며 경일대는 2017년에 이어 참가하고 있다. 경일대는 이번 행사에서 자체개발한 자율주행기술을 탑재한 차량과 관련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경일대는 올해 내로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기술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자율주행 운행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대구·영남권에서는 최초로 완전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성공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경일대는 대학 내 LINC+사업단과 기계·IT융합 자동차부품인력양성사업단(KIU-MI)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시회와 함께 열리는 포럼에서 조직위 자율분과위원인 경일대 이영진(Autonomous A2Z 대표)가 '교육용 자율주행차 플랫폼'에 대한 주제로 강연 할 계획이다. 이 포럼은 미래자동차 산업동향 및 정책방향을 선도할 내용으로 3개 분과, 4개 세션으로 구성해 80여 명의 국내외 석학들이 연사로 나서 주제발표 한다. 강우중 연구소장은 "미래자동차 선도도시 대구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전시회에서 경일대학교의 자율주행 차량과 기술을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라며 "대학 내 연구역량을 결집하고 산·관·학·연 협력을 통해 경일대가 미래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대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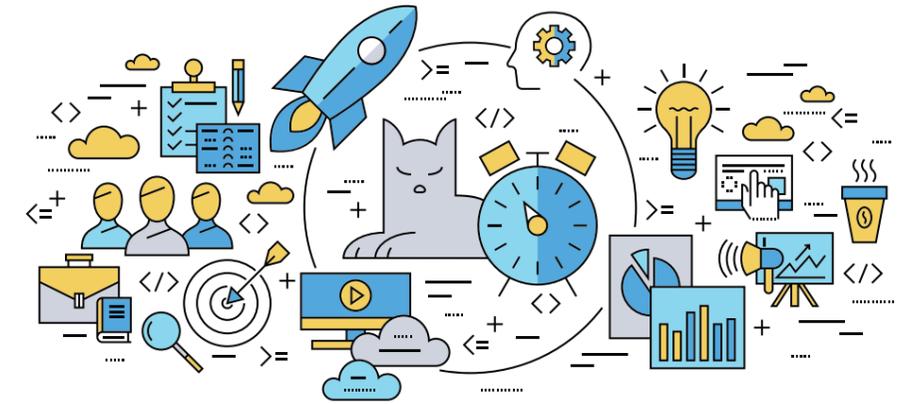
경일대학교 창의·융합 KIUM Fair 2018 개최

재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진작시키고 융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 학부(과)에 걸쳐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경일대학교는 12월 6일 도서관 로비에서 '경일대학교 창의·융합 KIUM Fair 2018'을 개최했다. 이번 KIUM Fair는 교육부·한국연구재단·경북도·경산시·영천시가 후원하고 경일대 LINC+사업단이 주관해 축제의 형태로 도서관 전체 공간을 활용하여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콜라보 공모전, 현장실습수기 공모전 등의 발표·전시와 경진대회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 키움마켓 제품전시, 3D프린팅 시연, 현장실습 상담,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전시, 뷰티화장품 산업전공 모듈체험, 리빙랩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해 참가한 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날 지역사회 TOBE Innovation 지원사업으로 실시되었던 '안심창조밸리의 재발견 사진전' 출품작 중에서 <주>화성산업 2019년 달력 메인사진으로 선정된 사진영상학부 김연수(4년)·남수영씨(3년)에게 정현태 총장이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현태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융합교육은 필수다. 개인의 창의적 사고와 아이디어를 협력과 소통으로 융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학생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ACTION

산학협력 EXPO서 장관·이사장 표창

가족회사 기술성과, 학생 작품 전시, 크라우드 펀딩 등



경일대학교(총장 정현태)가 지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산학협력 EXPO에서 교육부장관 표창,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표창 등을 수상해 산학협력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경일대학교 LINC+사업단은 '세상을 움직이는 2018 산학협력 EXPO'에 참가해 산학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일대 이종덕 팀장이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경일대 가족회사인 '위드어스'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인 우수가족기업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올해 2회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교육부와 부산광역시 주최,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 산학협력 우수성과 전시 ■ LINC+ 산학협력 고도화형 선도대학 체험관 ■ LINC+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선도대학 체험관 ■ 캡스톤디자인 옥션마켓 ■ 링크라우딩 펀딩 등 다양한 체험 및 전시 부스를 운영했다. 경일대 LINC+사업단에서 진행하는 'Dreamer 패키지 지원사업'을 수행한 가족회사 '위드어스'는 '비접촉 자전거 발전기'를 전시했다. 무접촉 구동방식으로 자전거 주행 중 무저항·무부하로 발전이 가능한 그린에너지 제품으로 EXPO 참관객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캡스톤 디자인 옥션마켓에서는 경영학부 김강민 학생 외 5명으로 구성된 'BETA'팀이 'Land Mark 정보 공유 방법'으로 투자받아 낙찰되었으며, 링크라우딩 펀딩이란 이름으로 진행 중인 크라우드 펀딩에는 디자인학부 윤승기 학생이 애완동물(고양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편백 스크래처'로 출품하였다. 경일대 김현우 LINC+사업단장은 "캡스톤디자인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다양한 성과가 도출되고 있으며, 가족회사의 맞춤형 기술협력 및 지원을 통하여 동반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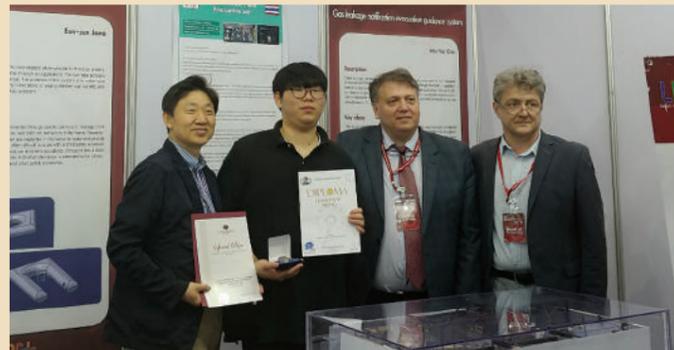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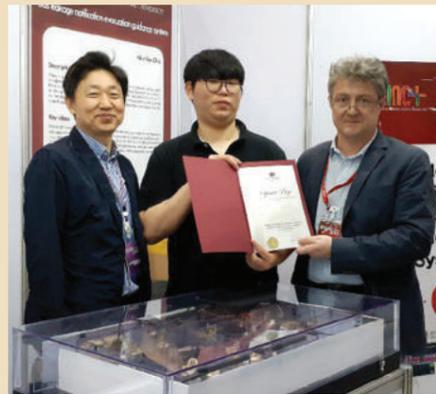




2019

태국 방콕 국제 지식재산·발명·혁신·기술 전시회

경일대학교(총장 정현태)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태국 방콕국제무역전시센터(BITEC)에서 열린 '2019 태국 방콕 국제 지식재산·발명·혁신·기술전시회'에 참가한 학생 3명 전원이 입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를 위해 경일대 LINC+사업단은 창업동아리나 캡스톤디자인, 창업캠프 등 창업 관련 각종 대회에 참가했던 학생들 위주로 아이디어와 시제품 개발 완성도가 높은 3명을 평가를 통해 선발해 집중 지원을 했다. 그 결과 로봇응용학과 4학년 조민호 학생은 'IoT기반의 가스유출알림 및 피난유도 보조시스템'으로 금상과 루마니아특별상을 수상했다. 조민호 학생의 출품작은 가스 유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스마트폰 어플로 대피유도 경로를 알 수 있고 LED를 통해 보조 대피유도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또한 전자공학과 장은선 학생은 '실시간 모니터링 실내 도어스토퍼'로 은상과 IFIA특별상, 영국-러시아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뷰티학과 권미진 학생도 '테블릿 비타민 에센스'로 은상과 마카오특별상을 수상해 참가자 전원이 입상하는 기쁨을 누렸다. 김현우 경일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은 이번 수상을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용화하는 우리대학 창의교육체계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학생들도 새로움을 추구하고 무엇이든 도전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24개국에서 710여 점의 아이디어와 혁신, 발명 관련 시제품들이 전시되었다.



경일대, 서울국제발명전시회 동상 수상

경일대학교는 '2018년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 전자공학과 이성현 학생이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 차폭을 계산해 차종을 구별하는 시스템'으로 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고 UN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국제발명단체총연맹(OFOA)등 국제기관과 특허정보·기술이전 기관이 참여하는 행사로 지난 12월 6 ~ 9일 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려 34개국에서 605점의 발명품을 출품했다. 경일대 LINC+사업단과 특허셀럽 캠프를 매년 개최하며 학생들의 실용적인 아이디어 특허를 연계해 지원해왔는데 올해 127건의 특허출원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수상한 학생 역시 우수특허출원자로 선발돼 이번 발명 전시회에 참가하게 된 것이다. 이성현 학생의 동상 수상작은 거리 감지 센서를 통해 자동차 크기 및 존재 유무를 판단하고 차폭의 크기에 맞추어 주차라인을 움직여 스스로 주차라인의 위치를 설정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현우 LINC+사업단장은 "이번수상을 통해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직접 출원하는 특허셀럽 캠프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라며 "1인당 1지식재산권 확보를 목표로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일대 다문화가족 자립화 지원

경일대학교 LINC+사업단은 지난 12월 7 ~ 8일 이틀에 걸쳐 수성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송군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직업체험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 이민자들에게 경제적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자립의 힘을 키워주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운동교육과 기술교육으로 나뉘어 진행하였다. 본교 체육관에서 이원희 교수와 노인체육복지학과 학생들의 지도아래 '건강체육&아동발달교육'을 실시하였고, 18호관에서는 '봉제실습(패션디자인 전공 이주영 교수), 메이크업(뷰티화장품산업전공 권수경 교수), 건강교육(간호학과 양인숙 교수)'을 진행하였다. 이후 상호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 개발과 확대 및 사업 교류 증진을 위하여 MOU를 체결하였다.



제4회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GIF) 참가

경일대학교 LINC+사업단은 지난 11월 9일,10일 양일간 일정으로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GIF)’에 참가하였다.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이하 GIF)’는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주관해 글로벌 창의형 인재 및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다. 국내·외 이노베이터, ICT분야 전문가, 투자자, 스타트업이 한자리에 모여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축제를 넘어서는 ‘창업혁신 플랫폼’이다. 경일대학교 창업동아리 ‘열렸네요(열연강판과 자석타일을 활용한 타일 인테리어)’와 캡스톤 디자인 성과공유회 우수팀인 ‘NETCON(스마트 시티 대응 지능형 주차관제 및 가변 주차라인 시스템)’이 스타트업오디션과 메이커톤에 각각 출마했다.



2018년 대학 리빙랩 성과공유회 참가



경일대학교 LINC+사업단은 12월 13일 대구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8년 대학 리빙랩 성과공유회」에 참가하였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지역맞춤형 연구활동 분야 8팀과 주민연합형 대학육성 분야 11팀이 참여했으며, 프로젝트 마무리에 따른 각 팀별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공감토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경일대학교는 김경오 교수의 ‘동작인식 기반 비디오 게임을 활용한 노인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확산’이라는 사업으로, 도장수 교수는 ‘도시재생 마을학당 문화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레일카페 컬처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성과공유 발표를 하였다.



노인체육복지전공, 시니어 올림픽 개최



후호, 비디오게임 등 다양한 종목으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경일대학교 노인체육복지전공은 11월23일 ‘지역사회 TOBE Innovation 지원사업’ 일환으로 범물실버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제2회 시니어 올림픽’을 열었다. 이날 올림픽은 노인체육복지전공 교수 및 학생들과 어르신, 관계자 등 2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통놀이인 후호를 비롯해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 맞는 동작인식 비디오 게임을 활용한 신체활동까지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해 참가 어르신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범물실버복지센터 우태양 관장은 “시니어 올림픽은 대학과 지역이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보살피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경일대 노인체육복지전공 학생들의 추후 진로와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힘껏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오 주임 교수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경일대학교 노인체육복지전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일대학교, 일본 동경대학교 공동 세미나 개최

고령화 · 1인가구 현황 등 공유
양국의 실제 정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아이디어
공유도출성과 및 해결 방안 모색



경일대학교(총장 정현태)는 일본 동경대학교와 ‘신(新)사회적 위험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혁신 한일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일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단의 지역사회 혁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세미나 주요 내용은 한일 공동의 사회문제인 고령화 및 1인 가구와 관련해 경일대 복지서비스학부 임태영 교수와 김유진 외 4명의 사회복지전공 학생들이 1인 가구 급증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동경대학은 이시하라 순지 경제학부 교수와 학생들이 일본의 고령자현황 및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세미나를 총괄 기획한 경일대학교 한상인 교수는 “일본 최고 명문 동경대학교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학술교류를 가지게 되었으며 양국의 실제 정책에 도움이 될 많은 아이디어들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향후 대경 사회복지기관에 적용 될 것이다. 세미나 외에 동경개호노인보건시설과 분교구청 고령자복지과, 분교구 사회복지협의회들을 방문하여 최근 한국의 주요 복지이슈인 커뮤니티케어의 선도적 사례들을 살펴보기도 했다. 추후 대구·경북지역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선도적인 커뮤니티 케어와 고령자 및 1인 가구 관련 실천사례들을 확산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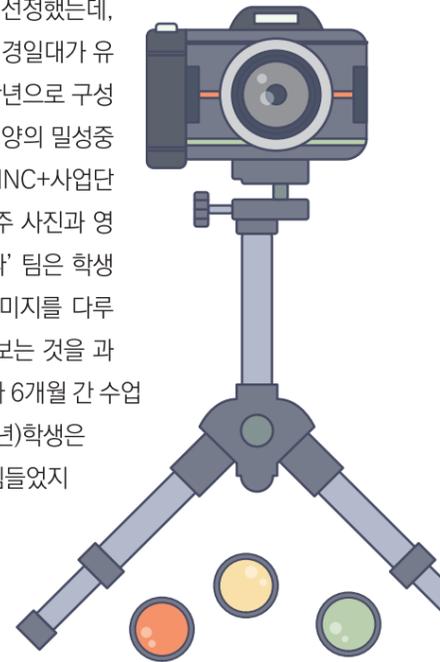
자유학기제 대학생 봉사단 우수상 수상

전국 17팀 중 유일하게 두 팀(이루다 · 교벤저스)입상



경일대학교 자유학기제 대학생봉사단 두 팀이 교육부의 수업지원 인력풀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전국 대학의 모든 대학생봉사단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 총 17개 팀을 선정했는데, 한 대학에서 두 팀이 선정된 것은 경일대가 유일하다. 경일대 사진영상학부 4학년으로 구성된 ‘이루다’와 ‘교벤저스’ 팀은 밀양의 밀성중학교와 대구의 경신중학교에서 LINC+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8월부터 매주 사진과 영상 관련 수업을 진행했다. ‘이루다’ 팀은 학생들에게 예술적 소양을 기르고 이미지를 다루는 법을 익혀 공모전까지 도전해보는 것을 과제로 삼아 주차별 교육계획에 따라 6개월 간 수업을 진행했다. 함지수(사진영상 4년)학생은 “매주 밀양까지 이동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학생들의 열정적인 참여에 팀원 모두가 즐겁게 수업에 임했다”라며 “CSI과학수사 수업 시간에 철가루를 이용한 지문 채집을 시연할 때 학생들이 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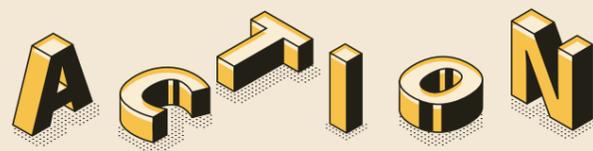
해하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팀원 모두가 교생실습을 앞두고 있던 터라 좋은 경험이 되었다” 라고 회상했다. 밀성중학교 이정욱 교사는 “경일대 봉사단 덕분에 자유학기제 목표인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고 학생들이 사진과 영상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전문지식을 가진 봉사단이 학교로 찾아와 주어 학교생활에 활기를 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라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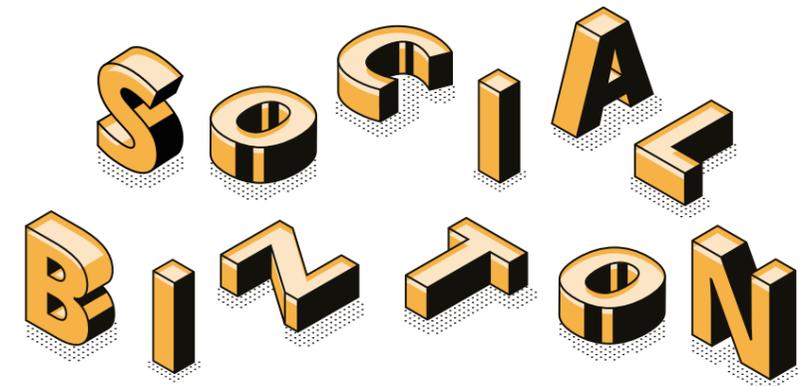
2018년도 O2O(Online to Offline) 진로·취업 멘토/멘티 교류회 개최



경일대학교 LINC+사업단은 온라인 상담의 특성상 공간 및 시간적인 제약을 넘어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까지도 진로상담을 콜라보플랫폼 (KIUM SOS)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진행중, 추가적 상담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오프라인상에서의 상담으로 확대하여 학생, 졸업생, 상담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O2O(Online to Offline)진로·취업 멘토/멘티 교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교류회에서는 재학생들의 심층적인 취업 및 진로상담을 나누고, 졸업생들의 취업 우수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실제 졸업생들이 취업 후 겪는 진로고민에 대해서도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 사회적경제 소셜비즈톤 창업캠프 개최



최근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일대 LINC+사업단이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경일대 사회적경제 소셜비즈톤 창업캠프'를 11월30일부터 1박2일 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했다. 3년 연속 개최된 이번 캠프는 김준훈 온새미로창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사회적협동조합과 기업가정신'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시작으로 ■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유형별 사례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차이 ■의 사소통과 문제해결 능력 ■ 사회적협동조합 사업모델 등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캠프에는 올해 경일대가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성과로 발간한 도서 《사회적 경제, 대학이 꽃피우다(삼일출판사)》에서 대학의 사회적경제 우수 창업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창업기업가 6명이 멘토로 참여해 팀별 실전 멘토링을 진행하기도 했다. 6개 팀이 현장에서 모의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진행한 경진대회에서 '브로'팀의 한국다문화청년협동조합이 제안한 '다문화 청년들에게 정보화플랫폼을 이용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아이디어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 외 '한국교통서비스협동조합', '대학생공유협동조합', '한국환경문화 재창조협동조합', '반려견돌봄협동조합', '방셔틀협동조합'팀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김현우 LINC+사업단장은 "창업에 나서는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사회적경제 기업 방식의 창업이 타당하다고 본다"라며 "이번 캠프를 통해 발굴된 참여학생들의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일대 자율주행차융합기술연구소 개소

“지역 자동차산업을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견인”



경일대학교(총장 정현태)는 12월 6일(목) 오후 2시 교내 산학협력관 1층에서 ‘자율주행차 융합기술 연구소 개소식’을 거행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현태 경일대 총장을 비롯해 김정우 대구가톨릭대 총장, 전우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한식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장, 최대진 경산시 부시장,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이하동 경북차량융합메디드기술연구원 원장, 박성환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원장, 등 내빈과 한중엔시에스, (주)금창, 삼보모터스, 평화산업, 전우정밀 등 관·산·학계 관계자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소 소개 및 추진계획, 테이프커팅, 현판제막, 시설투어, 기술교류회 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개소식에서는 경일대가 개발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전기차에 대한 교내 주행시승도 함께 진행되었다. 경일대 자율주행차 융합기술 연구소는 전기차 ‘D2’를 개조해 자율주행 5단계 중 4단계에 해당하는 고도자동화 기술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도심형 자율주행 기능을 추가해 자율주행셔틀버스 개발·운영하는 기술개발 추진”



자율주행차의 교내주행을 직접 시승한 내빈들은 국제자동차기술협회(SAE)의 레벨4에 해당하는 고도자동화 단계에까지 다다른 경일대의 자율주행 기술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강우중 자율주행차융합기술연구소장은 “현재의 자율주행 전기차 기술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도심형 자율주행 기능을 추가해 경일대 삼거리에서 캠퍼스 2km를 자율주행이 가능한 셔틀버스를 개발·운영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태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일대학교 자율주행융합기술연구소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관·산·학계의 협력과 기술교류를 통해 지역의 자동차산업이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기관 지정

철도 관련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교육

남북 간 철도 연결과 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횡단 철도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일대학교(총장 정현태) 부설 ‘KIU철도아카데미’가 지난 1월 17일자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차량 운전면허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 고시 되었다. 경일대는 지난 12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철도기술연구원에서 파견된 현장실사 단으로부터 교수진·훈련과정·실습장비·교육시설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되었다. 2005년 4년제 대학 중 처음으로 철도학부(철도경영전공, 철도기술전공)를 개설하여 우수한 졸업생들을 철도산업 분야로 배출해온 경일대는 교육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1년가량의 설립 추진과정을 거쳐 철도관련 대학생 및 일반인들이 철도기관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으로 최종 지정 받은 것이다. 김한영 KIU철도아카데미 원장은 “그동안 가까운 곳에 교육훈련기관이 없어 철도기관사를 꿈꾸는 지역의 많은 지원자들이 타 도시에서 교육을 받는 시간적·금전적 불편을 겪어왔다”라며 이제 KIU철도아카데미가 개원하게 되어 대구·경북은 물론 부산·경남지역의 인재들이 손쉽게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정현태 총장은 “철도는 국가발전의 밑거름이자 기간산업”이라며 “철도산업의 성장과 발전이 곧 대한민국 경제발전이기에 KIU철도아카데미가 전문인재 양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KIU 철도아카데미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지정



경일대, 자율주행 임시면허 취득

전국 대학 중 5번째, 초소형전기차 기반으로 국내 최초

경일대학교(총장 정현태)는 국내 초소형전기차 'D2'를 개조한 차량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레벨 3등급의 임시면허를 취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국내 대학교로서는 서울대-한양대-KAIST-연세대에 이어 5번째로 취득한 것이며, 2인승 초소형전기차 기반으로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면허를 취득한 것이다. 자율주행임시면허를 취득한 차량은 미래 스마트시티의 퍼스널모빌리티형 자율주행차량을 타겟으로 제작 및 개발이 진행되었다. 이 차량은 2인승 초소형전기차에 360 라이다 2대와 전방 카메라, GPS 등을 융합한 자율주행 센서시스템을 구성하여 정밀지도 기반의 위치인지 맵 매칭을 통해 도심형 자율주행기능을 구현한 것이다. 경일대 자율주행차융합기술연구소는 자율주행면허를 취득함에 따라 실제 복잡한 도심도로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취득된 주행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후 기능향상을 위한 센서와 V2X통신모듈 등을 추가해 완벽한 도심자율주행 기능을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강우중 연구소장은 “공간이 협소한 초소형전기차에 자율주행 장비와 기술을 탑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 장비를 소형·경량화 하는 것이 핵심기술”이라며 추후 완전자율주행기술로 발전시켜나감에 따라 경일대 삼거리에서 캠퍼스를 오가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도 함께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태 총장은 “자율주행 기술은 인공지능·정보통신·GPS·로봇·전자제어 등이 총망라된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라며 “이번 자율주행임시면허 취득을 계기로 대구·경북이 미래전기차 선도도시로 도약하는데 경일대학교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취업·창업 역량 평가 전국 11위



경일대학교가 한국경제신문이 실시한 ‘한경 대학 취업·역량 평가’에서 서울대, 포스텍에 이어 종합순위 전국11위에 랭크되었으며, 사립대학 중에서는 9위를 차지했다. 또한 대구·경북·강원·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2위(1위 포스텍)를 차지해 전통적으로 취업과 창업에 강한 대학임을 또 한 번 입증했다. 특히 학생당 창업지원 금액 분야에서는 한양대와 동국대를 제치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원 금액에서도 경일대는 학생1인당 57만8천 원을 지원해 한양대의 47만1800원, 동국대의 33만5600원 보다 1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경일대가 이같이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창업지원이 성과로 이어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한국경제는 분석했다. 경일대는 학생 창업자 수가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으며, 2011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창업선도대학에 경북지역 최초로 선정된 이후 학내 기업이 창업아이템사업화창업자에 선발되면 최대 1억원의 자금지원과 맞춤형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번 평가는 한국경제신문이 캠퍼스잡앤조이, 글로벌리서치와 공동으로 전국 4년제 대학 162개와 전문대 133개 등 295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중 취업·창업과 관련된 8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했다. 종합순위에서 한양대가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코리아텍, 고려대, 성균관대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정현태 총장은 “건학 이래 꾸준히 산학협력 기반을 다져오면서 최근에는 국책사업과 정부재정지원사업을 다수 유치해 취·창업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온 것이 인정받은 것”이라며 취·창업 역량 최우수대학에 만족하지 않고 자율주행전기차 기술개발, 무인항공 및 철도전문인력 양성 등 미래형 첨단산업선도와 인재육성으로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제 8회 KOLLABO EXPO 개최

산·관·학·연 관계자 5백여 명 참석, 산학협력 최대 규모 행사 성과 발표 및 공유, 4차산업혁명 선도 머리 맞대



산업체 재직자 교육에 5천여 명 교육 이수



12년 연속 최우수창업보육센터 선정



한경 대학 취·창업역량 평가 전국 11위



기술이전 29건 특허출원 등록113건

지역의 산학협력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성과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을 공유하는 대규모 행사인 ‘제 8회 경일대학교 산학협력 KOLLABO EXPO’가 지난 30일(수) 만촌동 인터볼고 호텔 컨벤션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정현태 경일대 총장을 비롯해 전우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안중곤 대구시 일자리투어국장 등 내빈들과 기업 및 기관·연구소 관계자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협력 성과 발표, 기업 우수사례 발표, 초청특강 등이 포함된 1부와 전시부스 투어, 각종 시상 및 소통의 시간인 2부로 나누어 행사가 진행되었다. 김현우 산학협력단장은 “최근 3년 간 산업체 재직자 교육에 900여개 기업이 참여했고 5천여 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12년 연속 최우수창업보육센터 선정, 한경 대학 취·창업역량 평가 전국 11위, 2018년에만 기술이전 29건에 특허출원 등록 113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100억 원 상당의 기계자동차·IT·그린에너지 관련 장비를 갖추고 지역기업이 활용하고 있으며 LINC+, 창업선도대학사업 등 국책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성과를 발표했다. 이어 경일대 산학협력단과의 협력을 통해 매출신장과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의 대표들이 사례발표에 나섰다. 스타킹 및 양말 스타트업 기업인 ㈜우수의 이돈관 대표는 “경일대 창업지원단의 도움으로 국내외 제품 전시회 및 박람회에 자주 참가해 제품홍보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라며 올해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수출에 역점을 둘 정도로 기업이 안정화되어 산학협력의 중요성과 고마움을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청특강에서는 현대자동차 글로벌품질전략사업부 제해동 이사가 단상에 올랐다. 제 이사는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대한 성과와 로드맵을 공개하고 4대 개발 분야인 자율주행 차량플랫폼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 행사는 내빈들의 전시부스 투어로 막이 올랐다. 이날 콜라보 엑스포 행사장 주변에는 경일대 자율주행과 KIU무인항공교육원의 드론이 종류별로 전시되었으며, 창업기업 및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우수성과를 30여 개의 부스를 통해 전시하였다. 정현태 총장은 부스투어 도중 각종 디자인제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일대 학생창업동아리의 부스 ‘정연하다’를 방문해 현장에서 수면배개를 구입해 내빈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이어진 시상 순서에서는 산학협력 유공자 11명에게 경산시장, 대경중소벤처기업청장,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경일대학교총장상이 차례대로 수여되었다. 또한 키움엔젤클럽 임종희 부회장과 양원테크 이동학 대표가 산학협력발전기금으로 현금 2천만 원과 현물 2천만 원을 각각 정현태 총장에게 기부했다. 정현태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자율주행, 철도, 무인항공의 삼두마차로 경일대의 산학협력과 인재양성의 바퀴가 힘차게 움직이고 있다”라며 콜라보 엑스포를 통해 참석자 모두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